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시고, 복 많이 나누세요 ☺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k.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ny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김 진열 가롤로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지도수녀 : 김 효주 (투스 평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sb@gmail.com

사목회장 : 백 이백 아오스딩 646. 599. 5795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 이사 49,3,5-6

화답송



(후렴) 주 하느님의 어치심을 저희위에 내리소서.

○ 산들이 솟기 전에, 땅이며 누리가 생기기 전에, 영원에서 영원까지 당신은 하느님이시옵니다. 천 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한 토막 밤과도 같 사옵니다. ◎

○ 당신이 그들을 쓸어 내시니, 그들은 아침에 든 선잠 같고, 사라져 가는 풀과 같 사옵니다. 아침에 돌아나 푸르렀다가, 저녁에 시들어 말라 버리나이다.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밑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 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2독서 | 야고 4,13-15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 나이다. ◎

복음 | 루카 12,35-40

성가 입당성가 57 우리는 목장의 백성이로세

예물준비 77 주 천주의 권능과

성체성가 181 신비로운 몸과 피

파견성가 까치 까치 설날 주보4면

미사 봉헌

연미사

설 합동 위령 미사 참조

생미사

박인영 크리스티나 생일
서하연 라이언, 프란체스코
조후연 야고보 신부 영육건강
박민재 아그네스 영명일 축하
이지훈 아네스 영명일 축하
김영희 클라라
민덕미 안젤라
김연주 레아, 이상돈 토마스
박기목 알버트, 박민재 아그네스
서하연 프란치스코
윤복용 요한
김계현 소화데레사
김지안 에밀리아나

봉헌

봉헌

김보현 엘리사벳
민경록 로이드 가족
익명
양미숙 마리아
양미숙 마리아
류유리 마태아
익명
한서희 데레사
한서희 데레사
서인철, 이영노
조남용 미카엘 데레사
김승범 프란치스코
김승범 프란치스코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복사1	복사2
1월 22일	이울리아나	강안드레아	민안젤라	민안젤라	유유스티나	한데레사 김마리아	김요셉 양글라라
1월 29일	김데레사	정프란치스코	임마리아	임마리아	김카타리나	-	-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예비신자교리	매주 주일 11:00

지난 주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Cash \$ 1,740 김기례 김승범 김미혜 유정옥 주현경 서경자 양복연 송명자 김성중 임금중 박승민 안영옥 이영애
	Check \$ 1,450 김유화 배인순 김지영 강해숙 강명옥 권엘라 김영희안나 유희순 김영희글라라
감사헌금	\$ 100 강해숙
합 계	\$ 3,290

▶ **교무금**은 하느님과 가난한 이웃을 위한 '예물'로 교회 운영·유지, 사목활동, 가난한 이웃 사랑의 실천에 쓰입니다. 신자들은 하느님을 경배하고, 선교와 사목 활동, 가난한 이들을 위한 자선 활동, 교역자들의 생활비 등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도움 의무와(교회법 222조) 가정마다 매달 교무금을 봉헌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165조)

▶ **고유 명절인 '설날'**

미사 직후 친교실 :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많은 교우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 **손님 신부님 미사봉헌**

김 가롤로 신부님께서 한국에 비자갱신 위해 다녀 오시기에 1/29(일), 2/5(일), 2/12(일) 손님 신부님께서 미사봉헌 하십니다.

▶ **유아세례 신청**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09:15) *신청: 사무실

▶ **로마, 아씨시 성지순례 내년으로 연기**

코비드 완화 이후 여행자 급증으로 항공료가 급등하여 올해 성지순례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추후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공지 드리겠습니다.

▶ **복사단 모집**

미사 집전하시는 신부님을 도와 성실히 봉사할 신심 깊고 책임감 있는 청년은 신부님께 신청 바랍니다.



▶ **까지 까지 설날은 ♪**

까지 까지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꿈고 고운 댕기도 내가 드리고, 새로 사온 신발도 내가 신어요
우리 언니 저고리 노란 저고리, 우리 동생 저고리 색동 저고리
아버지와 어머니 호사하시고, 우리들의 절반기 좋아하세요

▶ **2023년 주일학교 청년 교사 모집**

어린이는 교회의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어린이와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성장할 주일학교 청년 교사를 모집합니다.
자격: 세례받은 청년, 문의: 347-834-5784

▶ **청년회 새신자 등록**

문의: 청년회장 양정운 줌마 카톡 ID:Jcy258



Email: Jclara.yang@gmail.com

또는 청년회 새신자등록 큐알 코드에 접속후 등록.
새 청년신자 들은 ▶ 큐알 코드로 신자등록을 하시어 본당 행사와 청년 단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미사전 일찍 도착** 미사에 09시까지 성당에 도착합니다.

옆 사람과 잡담하지 않으시고 해설자와 함께 성경봉독하며, 주님을 뵈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 **성경을 읽기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 **성경을 읽은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 공지사항
- 기부
- 주보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루카12,25-40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면서 새해의 첫날을 시작해 봅시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금연, 금주, 다이어트 등. 새롭게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품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작심삼일로 그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결심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함께 응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복을 바라고, 또 복을 비는 행위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중요한 행위였습니다. 우리의 전통과 그들의 전통은 다르게 다가옵니다. 우선 이스라엘에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느님의 복이 다른 사람에게 내릴 수 있도록 빌어 줄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설렘과 희망을 품고 축복 가득한 새해 벽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복을 빌어 주고, 어떤 복을 바라고 있나요? 저마다 바라는 복의 모습은 모두 다를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 첫날을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봉헌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은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복을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을 내려 주시기를 청해 보면 어떨까요? 새해 첫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면서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박형순 바오로 신부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옥지 아가다, 이경희 미카엘라, 김동희 헬레나, 정창동 폴리나, 지군자 스테파니, 진정은 마리아, 이진자 세실리아, 이병국 요한, 이경봉 요셉그레고리오

단체 모임

구세주의모후 Pr.	매주 주일 08:00	Rm(2F)
우리즐거움의원천 Pr.(청년)	매주 주일 11:00	2D
하늘처럼성가대	매주 주일 08:30	3B
예비신자교리반	매주 주일 11:00	3A
청년회	첫째 주일 12:30	2A
청년찬양팀(아훼이레)	1,2째 토 15:00	3B
성령기도회	매주 화요 17:30	Rm(2F)
신명풍물패	2~5 주일 14:00	3A
울뜨레아	첫째 주일 11:00	Rm(2F)
성모회	둘째 주일 11:00	1B
연령회	둘째 주일 11:00	아래성당
요셉회	셋째 주일 11:00	1B
꾸리아	셋째 주일 11:00	Rm(2F)
성소후원회(양업회)	셋째 주일 11:00	2E
사목협의회	넷째 주일 11:00	Rm(2F)
학부모회	첫째 주일 11:00	-
예수성가정회 FYMNY	넷째 주일 11:00	-

사랑의 편지
(루카 12,40)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연도란?

▶ '연도'가 무엇인가요?

'연도'라는 용어는 오늘날의「가톨릭기도서」와 같은 「천주성교공과」(1864년 출간)에 나옵니다.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성인들의 간구를 청하던 성인호칭기도를 '연옥도문'(煉獄禱文)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줄여서 '연도'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은 성인 호칭기도를 포함한 죽은 이를 위한 기도를 '위령기도'라고 합니다. 구성진 가락으로 기도를 바치면서, 죽은 이가 주님 품에서 편안한 안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부활의 영광에 함께 하리라는 우리 신앙을 드러내는 간청입니다.



백두산 천지

▶ 설날이나 추석에도 연도 하는건, 왜 그런 건가요?

:설날과 추석은 가족과 함께 조상에게 감사하는 축제입니다. 죽은 선조들을 기억하는 아름다운 풍습을 교회가 이어받아 위령미사를 드리기도 하고 위령기도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 가톨릭 신자가 아닌, 조상이나 가족을 위해 기도 할 수 있나요?

돌아가신 조상과 가족의 종교를 막론하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부합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고인을 위해 언제든지 하느님께 기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초기부터 죽은 이들을 존중하고 기념하였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특히 미사성제를 드렸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1032항

윤종식 신부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전례학과 교수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 우리 민족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2023, 새해